

남수단 마반어 성경 봉헌식 모습



김장환 목사가 미국 종교방송협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 김장환 목사, NRB 명예의 전당 헌액

### 기독 방송인 공헌자에게 수여하는 상

김장환 목사가 미국 종교방송협회(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이하 NRB)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김 목사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제75회 연례대회 '프로클레임 18'에서 이 같은 영예를 안게 됐다.

'NRB 명예의 전당'은 기독교인론 분야에서 큰 공헌을 한 기독 방송인에게 주어진다. 이 상은 그동안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모범을 보이는 기독교인들에게 수여돼 왔다.

이번 NRB 연례대회에서 김장환 목사는 1956년 극동방송 창사 이래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 공산권에 라디오 전파를 통한 선교 방송에 힘써온 것을 인정받아 'NRB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역대 수상자 중에는 최근 별세한 세계적인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를 비롯해 찰스 스탠리(Charles Stanley), 찰스 스윈돌(Charles R. Swindoll),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의 작곡가 조지 비버리 셰(George Beverly Shea) 등이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을 비롯한 12명이 강사로 참여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개막식 연설을 맡았다.

이 컨퍼런스는 매년, 전 세계의 수천 명의 기독교 방송인들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기독교 행사로서, 크리스천 연사들의 강의와 기독교 방송인들의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박람회로 진행되어 왔다.

윤수영 기자

## 7,097개 언어 중 3,324개 성경 번역돼

### UBS, 2017년 12월 기준 통계 공식 발표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UBS)는 하나님 말씀이 최소한 단편(쪽복음)이라도 번역된 언어의 수가 전 세계 언어 7,097개 중 3,324개(2017년 12월 말 기준)라고 발표했다.

언어 번역 현황은 성경전서 674개, 신약전서 1,515개, 단편(쪽복음) 1,135개 등이다. UBS 측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언어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더욱 쉽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기존 번역본을 개정하고, 새로운 번역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총 1,400만여명이 사용하는 20개 언어의 첫 성서 번역이 이뤄졌다. 이 중 첫 번역 성경전서는 7개, 신약전서는 4개, 단편성서는 9

개이다. 또 26개의 새로운 번역 및 개정판, 9개의 해설 성경이 새로 나왔다. UBS는 현재 400개 이상의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에서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첫 번역된 남수단 마반어 성경 9,320부를 제작해 지난해 12월 13일 봉헌했다.

남수단은 지금까지도 내전이 지속되고 있지만,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마반어 성경 봉헌은 예정보다 2년이나 앞당겨 진행됐으며, 봉헌식에는 난민 캠프에서 온 1만여 명이 참석했다.

남수단성서공회 총무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마반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음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

다"고 인사했다.

UBS 측은 "아직도 2억 9백만여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3,773개의 언어는 성서 번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첫 번역 성경을 받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완료됐나'보다 '성경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변화됐나' 하는 마음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언어로 말씀하고 계셔!"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인다"며 "현재 전 세계 약 81% 사람들이 각자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이 존재할 만큼 번역에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 남가주 한인들, 올해도 국가 기도의 날 동참

올해도 남가주 한인들이 미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매년 5월 첫째 목요일에 미 전역에서 열리는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을 맞이해 한인 교회는 자마와 남가주 지역 각 교협 및 목사회, 여성목사회, 장로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5월 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기도회를 연다. 장소는 주님세운교회(박성규 목사,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다.

올해의 주제 성구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이며 주제는 "미국을 위해 기도하라-연합(Pray for America-UNITY)"이다. 올해도 미 전역 4만 2천여 곳 이상에서 기도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기도의 날'은 1863년 링컨 대통령이 필요성을 제기한 후, 1952년 의회의 결의에 따라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해 법으로 제정됐으며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이 관련법에 서명함으로써 매년 5월 첫째 목요일로 개최일이 확정됐다.

한국 국가대표 아시아 챔피언 출신,  
 국가대표 심사위원 출신, 독일 슈바츠코프,  
 영국 알란 인터내셔널 강사,  
 Super Cut, Ambulance Hair 강사 출신들이 직강

**QCA 미용 대학 미용기술 연구반(Advanced Course)**  
 미용 기술의 완성, 각 단계마다 주2회 2개월 과정,  
 수강료 \$1,000, 주간 야간 가능

**QCA Beauty College** 준 박 T.(213)232-3837  
 3660 Wilshire Blvd., #338 Los Angeles, CA 90010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전기계통  
 ■ Tune-Ups            ■ 10K Service  
 ■ Computer Diagnostic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5-3180**

www.marhlaw.com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辯護**  
 변호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實力**  
 실력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 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精誠**  
 정성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뺄 없는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責任**  
 책임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인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믿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전문이 없는 것 같 알고 있습니다.

**信賴**  
 신뢰

"예수 부활하셨네"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한인기독교상담소 칼럼

스몸비족을 들어보셨나요

Quiet Time.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친숙한 단어이다. 뜻 그대로 '조용한 시간'으로 오토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 순간만큼은 분주한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져가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우리는 성경 묵상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에 힘쓴다. 그렇지만 요즘처럼 분주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종종 나타나곤 한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마트폰 사용이다.



김보라 상담원  
한인기독교상담소

생하기까지,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의 중독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은 생각보다 꽤 크다. 한국 대학생 60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36.5%가 스마트폰 중독이었다. 더구나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은 우리 건강에 대한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거북목 증후군, 수면장애, 일상생활을 하다가 미끄러짐, 다른 사람과의 충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울과 불안감을 초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렇게 우울과 불안감이 지속한다면 우리의 뇌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마저 저하가 된다. 관계적인 면에서도 정신증, 불안, 적대감, 강박증 등이 나타나고 있어 스마트폰이 주는 영향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민감성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영적인 면에서는 어떠한가.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재미'에 빠져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다. 그로 인해 경건 생활을 놓치고, 해야 할 일을 깜빡하고 미루는 일까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흥미하게 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을 놓치고 마는 것이다. 맥체인 목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이 세상의 재미로부터 사로잡히지 마세요. 시간은 짧습니다." '사로잡힘'이 이 세상이 주는 재미

라면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릴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사로잡혀야 하지 않겠는가!

혹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거나, 초조함을 느끼는가?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없는지 스스로 민감성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기체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성을 넘어서 지배당하게 되면 그것의 견장을 수 없는 과급력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올 수 있다. 만약 스마트폰으로 인한 중독이 의심된다면 그 사용 횟수를 줄이는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먼저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앱이 깔려있다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을 찾아 하나하나씩 지워보자. 또한, 스마트폰 사용하던 시간을 분배하여 그 시간을 다른 활동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의 취미 생활을 하는 것과 경건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세워 그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일들을 시간 분배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의 팁은, 알람을 무음으로 해놓거나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단 그렇게 하기 시작하여 습관이 된다면, 생각보다 고요함이 주는 안락함이 크다는 것을 머릿글자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도 자연스럽게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게 경건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중독의 해로움을 인식하여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문의) 한인기독교상담소 (kaccla.net) 전화) 213-738-6930 (LA) 657-529-1133 (OC)



일본 목회자 부부 내적 치유 세미나에 강사로 참여했던 윤향금 원장

연극과 찬양, 간증으로 치유  
윤향금 원장 미주 집회 준비 중

예수가정치유상담연구원 원장 윤향금 사모가 미주를 방문하여 여러 교회에서 집회를 준비 중이다.

윤 원장은 숭실대학교 기독교학 대학원(목회상담학)과 햇빛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목회학)을 졸업했으며 <주여 나의 눈물을 닦아 주소서>, <기다림에 지친 그대에게> 등 여러 책을 저술했다. 그가 쓴 책에 대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와 성경의 바른 진리를 알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유함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추천사를 썼다.

또 그는 CTS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출연해 간증하기도 했다. 그의 집회는 자신의 창작 일인극 공연을 통한 치유 사역, 찬양 사역, 간증 사역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6년간 한국 온누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지구촌교회, 소망교회 등 교회와 대학, 중고등학교에서 700여 회 이상 열린 바 있다.

집회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 형

식부터 3일간의 치유부흥집회, 각종 수련회 집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능하다.

그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치유, 은혜를 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가 창작한 모노드라마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회개와 용서, 사랑을 전하는 선교 연극이며 불신자와 성도 누구라도 함께 보며 상처를 치유받게 한다. 3막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20분으로 구성돼 총 1시간이다. 1막은 어린 시절 상처로 실어증과 대인기피증을 앓는 여의사가 용서로 치유된 이야기, 2막은 학교와 가정에서 상처받은 여고생이 회개와 용서로 치유된 이야기, 3막은 우울증을 앓던 가정주부가 치유된 이야기이다. 이 연극을 감상하면서 분노의 감정과 아픔이 치유되고 남을 용서했다는 간증이 매우 많다고 한다.

윤 원장은 6월 4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임시 연락 전화번호는 323-683-7302이다.

40일 하프타임 하나님 나라 클리닉

40일 하프타임 하나님 나라 클리닉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 소재한 그리스도돌본받는훈련원에서 열린다. 이 클리닉은 자신의 후반기 사역

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 사역으로 변화시키기 원하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전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의와 훈련이 이뤄진다. 문의) 604-535-1800

라구나힐스 UMC 구국기도회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담임 립학준 목사)가 오는 3월 30일 성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대한민국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개최한다. 이번 구국기도회에서는 김평우

변호사가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주소) 24442 Moulton Pkwy Laguna Woods, CA 92637 전화) 949-380-7777

목회자 영성 집회 및 성령 컨퍼런스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주최로 LA 목회자 영성 집회 및 성령 컨퍼런스가 4월 3일(화) 오후 4시부터 4일(수) 정오까지 오직예수선교회(생신 목사, 3407 W. 6th St. #103 Los Angeles)에서 열린다. 강사 이

상목 목사는 미주와 전 세계에서 목회자 성령 컨퍼런스, 사모 영성 수련회, 평신도 영성회복 집회 등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미주 크리스천신학대학교가 주관하며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한인여성목

사회가 후원한다. 등록은 무료이며 첫째날 저녁 식사, 둘째날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목회자 집회 후에는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4일 오후 7시 나눔과섬김의교회(엘리아 김 목사, 276 S. Rampart Bl. Los Angeles)에서 열리게 된다. 문의) 213-272-6031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여름학교 모집 6/4 - 7/27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 “민주주의 성장한 만큼 침례교회 선호될 것”

## [인터뷰] 지구촌교회 원로 이동원 목사

### 미주 침례교 후배들에게 교단 정체성과 나아갈 길 역설

한국 기독교계와 침례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인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가 최근 미주를 방문, 침례교회의 정체성과 나아갈 길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그는 시애틀에 이어 19일 밤 LA에 도착해 20일 토론크에서 6시간에 걸쳐 이 지역 한인 침례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이후에도 상담과 권면을 이어가는 열정을 보였다.

이동원 목사는 이러한 강행군 속에 짧게 이뤄진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개신교 문화를 형성해, 침례교회에 대해서는 생소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물론 침례교회도 개신교회의 특성을 대부분 공유하지만 나름의 독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나눔으로써 침례교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싶다”고 이 같은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침례교 신앙의 핵심 7가지로 △성서의 절대적 권위를 믿는다 △중생의 필요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믿는다 △신자의 영원한 안전을 믿는다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과 신자의 제사장직을 믿는다 △두 개의 교회 의식을 믿는다 △지역교회의 자치성과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믿는다 △선교의 우선순위와 협동선교의 중요성을 믿는다 등을 꼽고, 이를 BAPTIST(B: BELIEVER'S PRIESTHOOD, A: AUTONOMY OF THE LOCAL CHURCH, P: PRIMACY OF SCRIPTURE, T: TRUE BELIEVERS ONLY IN CHURCH, I: INDIVIDUAL COMPETENCY OF THE SOUL S: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T: TWO ORDINANCES)로 소개했다.

이 목사는 침례교회의 가장 큰 장점으로 “철저히 민주적인 ‘회중정치’를 들었다. 그는 “그래서 우

리 교단은 다른 어떤 교단들과 비교해도 목사들이 덜 권위적이고, 성도를 존중하며 그들의 결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끈다”며 “한국 사회가 점점 더 민주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침례교적 신앙 양식이 더욱 선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침례교회가 가장 많은 것도, 미국의 민주적 정치 토양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미국 남침례교의 탁월한 신학자 멀린스(E. Y. MULLINS)가 침례교 신앙의 독특성으로 “종교에 있어서의 영혼의 자율적 능력”이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킨 뒤,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교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적용이 바로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만인 제사장적 교리를 믿는다는 사람들과 교회들은 많지만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또 그는 침례교회가 믿는 ‘두 개의 교회의식’인 ‘침례’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예수님이 이 의식을 지키도록 명하셨는가?”, “신약교회가 이 의식을 실천하는 모본을 보였는가?”, “이 의식이 상징하는 의미가 오늘의 성도에게 참된 교훈이 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합당한 의식은 그 둘뿐이라는 것. 그는 “침례교인들은 이 두 가지 의식을 명명함에 있어 ‘성례전’보다 ‘의식’이라는 표현을 선호했다”며 “그 이유는 이 의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인 것처럼, 심지어는 구원의 방편인 것처럼 오해돼 온 과거의 종교적 미신을 피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례교인들은 이 두 가지 의식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교회의 온전한 일원이 된다고 믿어 왔다”고 했다.

이 목사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참 의미에 대해서는 “신약 성서는 국교제도의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는다. 국교는 신앙의 자유를 억



이동원 목사와 침례교 신앙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압하고 국가의 악이나 종교의 악을 쉽게 표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민족은 복음화돼야 한다.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하고, 참된 전도는 개인적 응답의 자유가 전제된 상황에서만 진실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국 내에서 침례교회의 교세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 대해서는 “선교가 늦었기 때문”이라며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130여 년 전 동시에 도착해 선교 구역을 나누고 뿌리를 내렸지만, 침례교회는 이로부터 한참 뒤인 6.25 직후에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원 목사는 “침례교회의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유산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더 활기찬 믿음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해 마지 않는다”며 “우리는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교파의 선택에 있어 자랑스러운 침례교인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다.

또 “한국에 최초로 침례교회의 복음을 가져온 펜워 선교사는 찌그러진 물통이라도 복음의 생수를 운반하기 위해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께 감격한다고 고백했다”며 “복음은 완벽한 생수이지만 생수를 나르는 그릇으로서의 교파나 교단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물통을 준비하고 선택할 책임은 우리의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이제 한국과 해외의 한인 침례교회들도 많이 성장해서,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한인 교회가 침례교회들 중 가장 크다”며 “한인 리더십이 미국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한편 몇 년 전 조기 은퇴와 모범

적 리더십 이양으로 반항을 일으켰던 이동원 목사는, “은퇴 후 처음 3년간은 적극적으로 후임에게 멘토링했지만, 이후에는 새 담임 목사가 신임 투표를 통과하고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고 판단했기에 저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지구촌교회와 진재혁 목사를 위해서는 그저 중보기도와 축복을 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했다.

끝으로 이 목사는 현 한국사회에 대해서는 “진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끝난다. 하나님께서 청소하시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면 더 좋은 시절이 오리라 본다”며 “우리가 너무 비판적으로 보지 말고, 단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길버트 유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를요?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철저 정

**현대 HYUNDAI**

할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꾸러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 (949) 329-8222, (949) 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롤업배너, 현수막

WELCOME 환영합니다  
새로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Easter SUNDAY 예수, 부활하셨네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58>

## 한국 선교사가 배출한 몽골 교회 지도자를 만나다

지난주 필자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 “안녕하세요? 이 목사님! 저 자수아 몽흐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끝내는데 순간 떠오르는 분이 있어서 “아! 저, 글로벌 얼라이언스에서 만났던 몽골 목사님이세요?”라고 물어 보았다. 맞았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네.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네요. 미국에 와 있어요.” 이렇게 기쁜 해후(邂逅)를 하게 됐다. 지난 2017년 5월 한국 상주 열방센터에서는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열렸었다. 세계 60여개 국에서 약 4천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컨퍼런스였는데 그는 몽골 교회 대표로 참석하여 강사 자격으로 몽골 교회 선교 보고를 했었다.

선교 지도자들의 훈련이 절실히 필요한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도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실 사 하는 청, 자신도 선교 사명자로서 죽기까지 세계선교 사명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마무리 인사를 했다. 그때 청중들 모두 기립하여 박수로 격려하던 장면들이 생각났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아! 우리 최 선교사님이 너무 일찍 소천하셔서 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멋진 제자들을 만드셨구나’ 하는 감동과 자랑스러움을 가졌던 기억이 난다.

그는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화면을 비춰주었는데 순간 그의 뒤편에서 보고회를 인도하던 필자는 깜짝 놀랐다. 화면에 비춰진 사진은 십여 년 전 필자가 속한 교단에서 파송 받았던, 필자의 신학교 선배였던 최순기 선교사님의 영정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자수아 몽흐 목사가 이번에 엘에이 지역의 몽골교회 초청으로 집회 강사로 왔는데 글로벌 얼라이언스에서 식사하면서 나누었던 우리의 교제를 기억하고 내게 연락을 한 것이었다.

자수아 몽흐 목사가 말을 시작했다. 사진에 비춰진 최 선교사님이 몽골 선교사로 오셔서 학창 시절 자신을 전도하고 세례를 주셨던 분이었던 것. 그분의 영향을 받고 선교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 자신이 이렇게 몽골 교회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최 선교사님, 곧 한국 교회가 파송한 한국 선교사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또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열방을 향해 나가서, 세상은 몰라도 주님만이 아시는 너무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그는 주어진 30분의 시간 동안 몽골 교회의 성장 이야기, 세계선교를 향한 몽골 교회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 자신을 다듬어라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얼마 전 LA 한인 타운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시집 출판 축하 모임이 있었습니다. 출판 축하 모임이야 흔한 일이지만 이 출판 축하 모임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했습니다. 장로님으로도, 학자로도, 군인으로도 원로인 장석운 박사님의 시집 출판 축하 모임이었습니다. 장석운 박사는 육사 11기 그러니까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배출한 그 유명한 육사 11기 졸업생입니다. 군인으로 포병 대대장을 마치고 전역을 해서 도미하여 박사 학위를 받으신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하나 정치군인들을 향해서 머리 조아리지 않고 그들을 군인정신으로 비판했던 나름대로 군인으로서의 지조와 소신과 철학이 있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훌륭한 어른입니다. 신앙인으로는 좋은 장로로, 학문에서는 박사, 문학에서는 시인으로, 문화에서 피아노 연주자로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대로 잘 살아 왔고 잘 살고 계신 어른입니다.

고희(古稀)는 오래 전에 지났고, 미수(米壽)가 가까운 원로의 노익장이었습니다. 감성 풍성한 시어를 토해내며 낭송하는 모습을 보며 청년의 기상을 느꼈습니다. 나아가 장

것은 은사나 재능 그 이상입니다. 자신을 갈고 닦는 뜨거운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장로님은 연세도 있고 몸도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갈고 닦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멋지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의 쇠함을 극복하는 근사한 인생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멋진 인생은 세월 따라 익어가는 인생입니다. 김치는 썩지 않고 익어갑니다. 청국장은 부패하지 않고 맛이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도 세월 따라 익어갑니다. 가꾸어 가는 삶의 완숙미를 통해서 익어가는 인생의 멋을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인생은 보석과 같습니다. 다듬은 만큼 빛나게 됩니다. 최근 SNS에서 한국 간호사관학교 출신의 50대 간호사가 미국 의사가 되어 수련의 과정을 마쳐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르는 분이었지만 마음으로 축하를 했습니다. 순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신을 가꾸어 가는 모습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듬어 가는 인생은 세련과 품위로 장식됩니다. 갈고 닦는 인생은 익어가는 인생의 멋과 향기를 품게 될 것입니다.

로님은 출판 자축 피아노 연주를 했습니다. 음악에 문외한이어도 비범한 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연주곡은 피아노 전공자들도 연습을 해야 연주가 가능한 쇼팽의 Etude OP 10 #12 “혁명”이라는 곡이었습니다. 팔순을 넘긴 퇴역 군인이 상당한 수준의 피아노곡을 연주한 것입니다. 정말 멋져보였습니다. 군종목사로 20년 군복을 입었던 필자는 같은 군인으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비범한 은사요 천재성이 번뜩이는 재능을 가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음악성, 시를 짓는 감성 그리고 학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지성은 그야말로 특별한 은사요 재능입니다. 그러나 팔순을 넘어 시집을 출판하고, 피아노 연주곡을 대중들 앞에서 연주하는

## 美 교회에서 새신자를 맞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 라이프웨이 연구소, 관련 내용 소개

최근 라이프웨이 연구소(Lifeway Research)는 ‘환영과 선물: 교회는 어떻게 새신자들을 환영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라이프웨이 연구소가 개신교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작년에 진행한 조사 결과, 미국 교회에서 새신자를 맞이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예배 후 목회자와 만남 △ 교회 입구에서 환영 △ 카드 작성 등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6%는 새신자들이 왔을 때 목회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답했다. 입구에서 새신자들을 맞이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95%였다.

새신자에게 카드를 주면서 작성하게 한다는 응답자는 83%였고, 교회의 중앙에 교회를 소개하는 곳을 두고 있다는 응답자는 78%였다. 예배 도중에 새신자를 축복해주는 시간을 따로 가진다는 응답자는 69%였다.

라이프웨이 연구소 측은 “사실상 모든 교회들이 새신자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 새신자들을 위해



새들백교회의 예배 모습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는 전체의 1%였다”고 답했다.

교인 수가 50명 이하인 곳에서는 대부분 새신자들이 목회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98%)고 답했다. 예배 때 새신자를 일으며 세워 소개한다는 응답자는 22%였다.

반면, 교인 수가 25명 이상인 곳에서는 대부분 새신자들에게 카드를 주어 작성하게 한다(96%)고 답했다. 이어 주기적으로 새신자들

을 위해 교회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다(85%), 교인들을 위해 새신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따로 가진다(76%), 주차장에 안내자를 둔다(57%), 선물을 제공한다(59%)는 응답이 이어졌다.

라이프웨이 연구소의 톰 레이너 소장은 “새신자 환영은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단순하지만 중요한 한걸음이 매년 전도된 영혼들의 수에 거대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예수 부활하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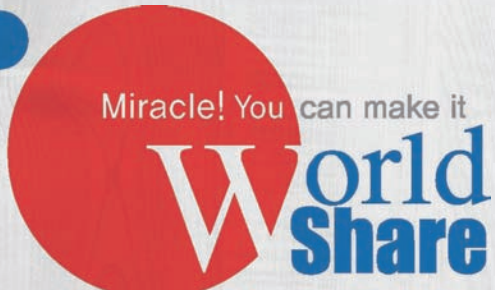
# 힘모아 코끼리 다리를 고쳐 줍시다!

## 사누 아르멜(Sanou Armel)!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 사는 17세 소년입니다. 5살부터 작은 흑으로 생긴 것이 커지면서 코끼리 다리가 되었습니다!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사누 아르멜 (SANOU ARMEL)

# 칭찬의 가이오, 책망의 디오드레베

요한3서 1:11-1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요한3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머지 요한1, 2서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3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장로와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의 장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령께 이끌리며 구령 성과를 위하여 복음도 전하고, 목회도 하게 하셨던 사도들을 일컫습니다.

### 1. 목자된 사도 요한의 심정

오늘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사적으로 보낸 편지 같지만, 이 편지의 내용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역사의 끝날까지 이 땅 위에 있게 될 모든 교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위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2절) 이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계시와 감동에 의해 우리나라 표현의 기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가이오라는 사람을 이렇게 알뜰하게 여겼을까?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3절) 성령에 사로잡혀서 생명 살리는 사역을 위하여 쓰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 그 영혼이 하늘 소망을 가꾸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 대해 이야기 하는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가이오가 애쓰고 수고하는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애쓰는 수고였다는 사실을 듣게 될 때, 내가 너를 심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4절)라고 하였습니다.

### 2. 칭찬 받는 가이오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가이오가 왜 사도 요한의 즐거움이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때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거점으로 사역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복음 확장을 애쓰는 중,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생업과 직장도 중단하고, 가족도 그대로 버려둔 채 성령에 이끌려서 유럽과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을 순회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자비량으로 선교하였는데 이 사람들의 열심이 특심하다 보니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전도는 계속되어 집니다. 전도 중에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날 입에 풀칠을 못한 채 굶주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린 창자를 부동켜 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한 목숨 기꺼이 제물로 바치리라는 각오로 다니다보니 돈이 다 떨어지고, 의복도 헤어져 못쓰게 되고, 신발도 망가졌습니다. 이제 몹시 지쳐 힘들었을 때에 이 가이오가 여관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 가면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듯 그렇게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다른 순회 전도자들처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여관과 식당을 경영하면서 여러 교회로부터 파송 받아 순회전도 나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집에 모셔 들이고는 그저 씻기고, 편히 쉬게 하고, 몸보신 시켜서 먹였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전도의 사명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오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순회전도자들을 보살피고 뒷바라지 하라는 사명을 받았으니, 이 사명을 위해서 힘쓰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전도해야 할 몫을 전도자들이 대신 감당해 주는 것이 진심으로 고마워서 전도자들을 돕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자들을 통하여 구원 얻게 되는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그들의 수고와 함께 가이오도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전도사역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별같이 빛나는 보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회전도 여행자들이 자기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 앞에서 전도 여행의 과정과 그 성과를 보고하게 될 때, 보고 하는 사람들마다 이 가이오에 대한 칭찬이 입에 침이 마를 정도였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간절했고, 너무나 고마웠고, 또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살리셔서 세계 선교에 더 요긴한 역할로 구령의 성과가 넘치도록 영광 돌려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네가 계속 건강해서 오래 오래 이런 역할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본을 세우고 성과로 영광 돌리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 3. 책망 받는 디오드레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르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어 펴놓고도 유위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9-10절) 앞에서는 칭찬 받는 가이오였고, 이번에는 책망 받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어느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성령을 받지 못했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 교회는 하늘나라 갈 사람을 단 한 사람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은 자기중심으로 이기적이고, 명분과 실속 챙기기에 급급해서 교회를 자기 것으로 관리하며, 최대한 이용해 먹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사도 요한의 평가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접대하지 않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까지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이르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고 책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11절)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성령에 이끌려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고, 믿어 살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지만 먹고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않고 속히 만나 보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이오를 향한 기대가 넘치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만나본 일이 없지만 자기 양떼들이 순회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할 때, 그 사람에게 대한 칭찬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도 여행자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아주 요긴한 역할로 봉사하는 가이오가 그토록 존귀하고 보배로웠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네가 하는 일이 계속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네가 건강해서 오래 오래 살며 이런 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도하는 일에 요긴히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사도 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도 실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유대 땅, 그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또 거기도 복음 전하고 벗어나서 땅 끝까지,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참여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총의 대상이 될 것이고, 전도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하여 전도나 선교를 행하는 비협조적인 태도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재촉하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칭찬의 가이오, 반대로 책망의 디오드레베 둘 중에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양심으로 각자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예수 부활하셨네

### 성금요일 “유월절 체험예배”

금요일 저녁 8:00  
유월절 만찬 재현,  
자녀들에게 시청각 신앙교육

### 부활절 예배

주일 12:30

내가 이성을  
고쳐  
낮게 하리라

예레미야 33:6



## 샘물교회

Saemmul Church

말씀의 샘물/성령의 샘물/ 축복의 샘물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10:30 AM / 2부: 12:30 PM  
금요기도회 8:00 PM  
새벽 기도회(월~금) 5:30 AM  
주일학교 주일 12:30 pm / 금요일 8 pm  
중고등부 주일 12:30 pm / 금요일 8 pm



정기정 담임목사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el.(714)749-7770

# 남가주 베델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찾습니다

- 1. 찬양 사역자
- 2. 유초등부 전도사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제출기한 : 2018년 3월 31일 까지

Email : info@bethelchurchsoca.org

교회 주소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이력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남가주베델교회 BETHEL CHURCH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 성숙의 뜻을 이루는 남은 삶을 위하여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우리의 생이 얼마가 남았는지 죽음과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왕에 시작된 삶, 믿음의 달리기를 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절실하게 필요한 과제입니다. 진화론이 옳다면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성경이 맞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저의 기도는 저희 교회에 나오거나 나오셨던 분들이 모두 천국백성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영적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들 중의 몇몇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지옥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인생의 종말이 두 번째 부활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구약에서 죽은 사람이 가는 음부 스올(Sheol)과, 신약에서 음부인 하데스(Hades)도 모두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계20:14). 모든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계

20:12-13).

더구나 불못에 들어가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 점술가, 우상 숭배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계21:8).

이와 같은 인간의 운명 즉 천국과 불못으로 갈리는 두 갈래 길을 알면서도, 내 멋대로 막 살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새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웃을 파괴

하며 마구잡이로 살아간다면, 정말 그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5:48),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기록하라”(레11:45)는 말씀을 우리가 완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온전하고 기록해지기 위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르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격이 완성되었다”는 착각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함에 이르는 생활을 안해도 된다”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헌신을 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성숙하심, 완벽하심과 거룩하심을 향하여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지속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하여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억힘으로 천국과 영생을 준비합니다.

# 미투 (Me-Too)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요즘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투운동으로 특별히 정치계와 연예계가 들썩입니다. 소위 줄을 잘서야 출세한다는 사회적인 인프라에서 그 줄의 꼭대기에 선 자들의 갑질이 성폭력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을 고발하는 운동입니다. 부끄러움과 체면 때문에 쉬쉬했다가, 사회적인 운동으로 번지면서 용기를 내는 자들의 고백으로 미투, ‘나도 피해자다’ 고발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미투운동이 한국까지 번지는 것을 보면서 지구촌을 실감하게 합니다. 좋은 것도 배우지만 그만큼 나쁜 것도 빨리 배우는 모습도 봅니다. 기독교인들의 안하무인(眼下無人) 격 갑질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하고 불법을 행한 것은 법의 심판도 받아야겠지만, 솔직히 저는 불에 기름 붓듯 번지는 이런 운동(movement)에 선의의 피해자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침과 뇌물이 통하지 않고, 원칙대로 선한 리더십을 가진 자들에게 책임없이 번지는 ‘...카더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성한 악성 루머가 걱정됩니다. 리더에 대한 험담이 확인도 없이 번져가고, 그도 모르는 사이에 죽

일 놀이 되고, 나중에 알고 변명하려면 이미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린 일들을 여러번 겪다 보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의 ‘솥뚜껑 기우’를 조금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최근 99세(1918-2018)의 일기로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400회가 넘는 크루세이드를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일이며,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위시하여 오바마 대통령까지 미국 대통령들과 가까이 하며 영적인 조언을 준 미국의 목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업적들이 보도되었습니다.

1973년 한국에서 집회하셨을 때, 1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여의도

에 운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의 물결이 일었다고 평가하는데, 어쩌면 저도 ‘미투(Me-Too)’ 1975년 주님을 만나 목회자로 헌신을 했으니, 그 부흥의 수혜자라 여겨 집니다.

1987년 어바나 일리노이 대학에서 있었던 선교대회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던 메시지에 ‘미투’ 은혜를 받고 선교적인 목회에 헌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제가 목사로 안수받기 전, 뉴저지에서 사역했을 때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East Rutherford, NJ)에서 저 역시 ‘미투’ 부흥을 체험하며 목사로서 안수받을 것을 각오했던 것이 생생합니다.

큰 영적인 별은 켜지만 ‘나도 은혜받았습니다’ 미투의 새로운 고백들이 밤하늘을 수놓는 작은 별들로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미투’의 간증과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피해자’임을 알리는 미투운동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흠뻑 받은 미투, ‘나도 은혜를 받았다’는 운동으로 새롭게 번져가면 좋겠습니다.

# 성금요일 구국기도회를 열며



림학춘 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지금 대한민국호 크루즈가 항해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한국은 전함이 아니라 크루즈를 타고 있습니다. 위기감도 긴장감도 절박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군사기밀로 다루어야 할 사드 미사일 배치도 언제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몇 기가 놓여있는지 다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어떤 제원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남한의 군사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있으며 내부갈등을 표출하고 있으니 얼굴을 드러내놓고 날 잡아보라는 전쟁놀이하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지난 2월 28일 비상시국기도회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주요 미디어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원로들의 기도와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또래

의 신하들의 말만 들었던 르호보암은 결국 나라를 두 동강내고 말았습니다. 통일보다 지금 더 소중한 것은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없는 통일은 적화통일입니다. 자유는 새들의 날개와 같습니다. 날개없는 새는 날 수 없습니다. 70년간 어떻게 여기까지 날아왔는데 그 날개를 묶어 놓고 잘라버리도록 더 이상 방치하면 침몰하고 맙니다.

크루즈 선박에 승선하여 체크인을 마치고 나면 지정된 대피처로 모이라는 방송안내와 신호음이 들립니다. 비상시 대피훈련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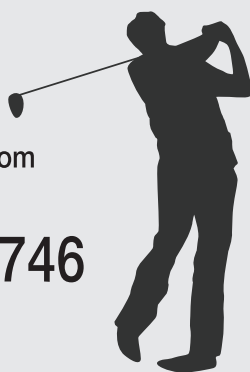
니다. 이 과정에서 한 편으로 쏠리지 않도록 배정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한쪽으로 많은 하중이 실리면 기울어지고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은 로마의 삼정정치처럼 치우쳐지는 것을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수반이 입법부인 국회를 제쳐놓고 개헌안을 만들어 재촉하고, 미디어가 사법부보다 앞서 나서는 모습은 바르지 않습니다. 세 다리가 평형을 이루지 않으면 솥은 쏟아지고 맙니다.

오는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날인 성금요일입니다. 올해는 구국기도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더 기울어져 복원가능지점을 지나가면 누구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돌로 갈라진 나라는 누구도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6~7살 1~2명 모집) 초보가능



Email : mrjacob601@hotmail.com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 예수님 부활하셨네

## UCS 신학대학교



**아브라함 최 박사**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고 선교의 사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United Christian Seminary University

3130 Wilshire Blvd, #210 LA, CA 90010  
T.(213)388-5992

## 감사한인 교회



**김영길 담임목사**

주일1부 예배 오전 7:30  
주일2부 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예배 오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521-0991

##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2:45  
유치,아동,학생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오전 6:20(토)

25500 S.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326-0300

## 다우니제일교회



**안성복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  
주일학교 주일오전 11시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949)380-7777 / www.lagunaumc.org

## 마테데스개혁신학대학교/대학원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2018년 학생모집**

- 본교는 세계 어디에서나 학문을 연구하고 학점을 이수 하면 졸업 및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르심에 확실한 소명이 있는 사람 중에 재정적 형편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나 왼쪽 위에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4545 W. Washington Bl Los Angeles, CA 90016  
본교 교무처:(323)428-7878 / (213)377-7641

## 미주양곡교회



**지용덕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519 S.Western Ave, LA, CA 90020  
T.(213)380-9377

## 베델한인교회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949)854-4010

##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회장 안병권 목사 (가나안교회)**

## shalom장애인선교회



**박모세 목사**

지역사회 숨겨진 장애인들을 찾아내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

<http://shalommin.com>

2869 W.Pico Blvd, LA, CA 90006  
T.(323)731-7724

##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515-1191

## 시카고벨엘장로교회



**최병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저녁 8:00  
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

399 N. Quentin Rd. Palatine, IL 60067  
T. (773)545-2222

## 얼바인은누리교회



**권혁빈 담임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 오전 7:30 중등부 오전 9:15  
2부 오전 9:15 고등부 오전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 LA 기쁨의 교회



**이희문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청소년예배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938 Wilshire Blvd, LA, CA 90010  
T.(213)351-9975

## LA 사랑의 교회



**김기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520 S.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T.(213) 386-2233

## 오레곤벨엘장로교회



**이돈하 담임목사**

1부 한국어예배 오전 8:00  
2부 한국어예배 오전 9:30  
3부 한국어예배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18370 S.W.Shaw St, Aloha, OR 97007  
T.(503) 649-3990

## 은혜와평강의교회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92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el : (818) 894-9266

##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 주님의교회



**오정택 담임목사**

주일예배 정오 1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어린이 & Youth 정오 12: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 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301 W Avenida De Las Flores  
Thousand Oaks, CA 91360  
T.(805)208-8242

## 주비전교회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 토기장이 교회



**임경남 담임목사**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유초등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토랜스제일장로교회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EM예배 오전 11:00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 할렐루야한인교회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 호놀룰루장로교회



**조일구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0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삼일밤예배수요일 오후 7:00  
구역별예배토요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  
중 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1:00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T.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주제: 믿음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20: 24~29)

# 기쁜우리교회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joyfulccc.office@gmail.com 818-662-0400

##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 예배안내

주일예배	본당	1부 7:00 AM 2부 9:00 AM 3부 11:00 AM
영어예배	Rec. Center	11:00 AM
주중새벽기도회	Patriots Room	5:30 AM
토요새벽기도회	본당	6:00 AM
유치부	교육관	11:00 AM
유년부	교육관	11:00 AM
중고등부	교육관	11:00 AM
사랑부(특수지역부)예배	교육관	8:45 AM
한글학교	교육관	10:00 AM
장년성경공부	교육관	10:15 AM(1부), 12:40AM(2부)
청년부성경공부	Rec. Center	1:30 PM



김경진 담임목사

“예수 부활하셨네”

# 飛上 (비상)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담임목사 한기홍

### 은혜교회 예배안내

<b>성인주일예배 (VC)</b>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b>교육부 주일예배 (MC)</b>	
영아~초등부	오전 9:20 / 오전 11:30
중·고등부 (EM/KM)	오전 9:20 / 오전 11:30
EM 대학부	오후 2:00
<b>청년부 예배 (GWPC)</b>	
목요 8pm(MC203) 금요 7:30pm(MC Cafe) 주일 2pm	
<b>English Service 주일예배 (MC)</b>	
Main Service	오전 9:20 / 오전 11:30
<b>GWPC 은혜세계기도센터</b>	
(월~금)새벽 5:30, (토)새벽 6:00 / (월~토)오후 8:00	
<b>수요 성도양육 과정</b>	
양육과정	오후 8:00
금요예배 (VC)	오후 8:00
금요성령찬회	오후 8:00
EM 대학부	오후 7:30
중고등부 (EM/KM)	오후 8:00
<b>농아교회 주일예배 (C&amp;B)</b>	
오전 10:00(C&B) / 오전 11:30(VC)	
<b>Jesus' Light (빌딩정예인)주일예배 (MC)</b>	

### 한기홍 담임목사 설교방송

우리방송 AM 1230	오전 08:30(주 일)
JSTV 미국지역 CH 668(DISHNET)	오전 10:00(주 일)
CHTV CH 18.7	오후 12:00(주 일)
CGNTV LA 지역	오후 02:30(월요일)
SAN DIEGO RADIO KOREA	오후 04:00(월요일)
CHTV CH 56.9	오전 04:30(화요일)
크리스천 에펠드 방송 AM 1650	오전 05:30(수요일)
KCBS CHICAGO AM 1590	오전 10:20(수요일)
CTS 미국(DIREC TV) CH 2092	오후 08:00(수요일)
SACRAMENTO 복음방송 AM 1690	오전 10:00(목요일)
JSTV 미국지역 CH 668	오후 1:30, 5:30, 9:40
CH TV 18.88	오후 10:00(목요일)
미주 복음방송 AM 1190	오전 11:30(금요일)
CTS 미국(DIREC TV) CH 2092	오전 05:30(금요일)
CTS 한국(금)	오전 06:00(한국시간)
SCA FM	오전 00:00(토요일)
	오전 09:00(토요일)
라디오 서울 1650	오전 00:00(토요일)

### 은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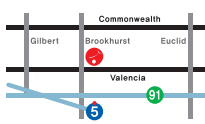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racemi.com

TEL : 714) 446-1000, 1004, 6200, FAX : 714) 446-6207

은혜세계기도센터(365일 24시간 OPEN) TEL : 714) 446-1005

예배: 5:30am, 8:00pm, www.gracewpc.com

### 은혜한인교회



그레이스미션대학 (G.M.U. 신학교) TEL : 714) 525-0088

Miracle Center #305호 www.gm.edu

은혜기도원 TEL : 951) 277-1188

11985 Indian Truck Trail, Corona, CA 92883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6200 www.gracemi.com

# 축 부 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순복음의 새 역사를 만드는

나성순복음교회  
LAFGC LA FULL GOSPEL CHURCH

담임목사: 진유철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주소: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Tel 323 - 913 - 4499  
Fax 323 - 913 - 4494  
www.lafgc.com  
lafgcusa@yahoo.com

주일  
대예배

<b>1부</b> 오전 7:40 본당	<b>2부</b> 오전 9:30 본당	<b>3부 (열린예배)</b> 오전 11:45 본당	<b>4부</b> (조용기 목사 영상에배) 오후 1:30 권사회실
----------------------------	----------------------------	------------------------------------	---

예배  
모임

새벽예배	월 - 토 오전 5:30 /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30 / 본당
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7:30 / 본당
영아부 예배 (0-2세)	주일 오전 9:30, 11:30 / 본당 영아부실
유치부 예배 (3-5세)	주일 오전 09:30, 11:30 / 신 교육관 유치부실
유년부 예배 (1-5학년)	주일 오전 09:30, 11:30 / 구 교육관
	금요일 오후 7:30 / 구 교육관 (AWANA)
WG 영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영어중고등부실
JVT 한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한어중고등부실
MIG 한어청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45 (3부 예배) / 본당
EM 예배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EM CAM(영어대학부)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토요일 19:00
실버드림대학	목요일 오전 9:00 / 구, 신 교육관
토요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09:30 / 구 교육관

### 예수 부활하셨네

#### 축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 인랜드교회

####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15
- 3부예배 오전 11:45
-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45
-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 주소 및 전화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inlandchurch.org](http://inlandchurch.org)

#### 축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 에브리데이교회

#### 예배시간 안내

- Sunday 주일예배  
8:00am - 1부  
9:30am - 2부/교육부  
11:00am - 3부/교육부/향기마을  
1:00pm - 4부(청년부)
- English Ministry(영어예배)  
11:00am&1:30pm Sunday(교육관 Education Center)
- Wednesday 수요일  
7:30pm - 수요기도회/Awana(Kidz Church)
- Mon~Sat 월요일~토요일  
5:30am - 새벽기도회



최홍주 담임목사

#### 주소 및 전화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Office: 818-832-6628  
 Fax: 818-368-0089  
[www.churcheveryday.org](http://www.churcheveryday.org)

#### 축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 남가주한인목사회

T.(213)215-6029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샘 신 목사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3407 W. 6th St. #103, Los Angeles, CA 90006

#### 축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T.(213)905-0646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  
안선신 목사

South California Korean Women Ministers Association

#### 축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이 땅의 참 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비전입니다.

## 코너스톤교회

####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2:00
-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중용 담임목사

#### 주소 및 전화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530-4040 / F. (310)530-8400  
[www.cornerstonetv.com](http://www.cornerstonetv.com)

#### 축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 LA시티교회

####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오전 10:50
-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 토요아침예배 오전 8:00



써니킴 담임목사

#### 주소 및 전화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지금도 1분에 30명, 하루 5만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갑니다.

**\$35** 이면 아동 한명이  
한달동안 건강하게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100** 이면 아이티 아동 10명이  
한달동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5200** 이면  
아프리카 잠비아에 깨끗한 물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고난주간 금식운동

2018  
전세계  
빈곤아동돕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명예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58장6절


소중한 헌금은 25개 빈곤국가의  
아동들을 위한 급식지원사업비로 사용됩니다.

보내실곳 : Good Neighbors USA P.O. BOX 5969, Buena Park, 90622

패키지 신청문의 : 877-499-9898 | korean@goodneighbors.us

####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52개 지부, 북한 및 해외 38개국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굿네이버스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병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일수록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 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37% 미세혈관 합병증	21% 당뇨병 관련사망	14% 심장마비	12% 뇌졸중
------------------------	-----------------	-----------------	-------------	------------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신간 도서

찬이가가르쳐 준 것

허은미 | 노준구 그림 | 한울림스페셜 | 44쪽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푸르메 그림책'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 작가와 화가가 '열손가락 서로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취재하면서 만들어 낸 그림책으로, 장애를 가진 찬이가 눈을 뜬 아침부터 해가 지고 잠이 드는 저녁까지, 함께하는 엄마와 누나의 일상을 따라간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찬이 가족을 통해, 사랑과 감사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하게 한다.



추천 도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의미 분명히 밝히는 날”

로완 윌리엄스 전 대주교의 '성육신과 부활에 관한 설교'

'성육신과 부활에 관한 설교'라는 부제처럼, 저자가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로 활동하던 2002-2012년 했던 성탄절과 부활절 설교들을 모았다. 1부 '성육신에 관하여(성탄절)'가 10편, '부활에 관하여(부활절)'가 11편이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부활절과 성탄절은 그리스도교인에게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 주는 날”이라고 말한다. “부활은 하나님과 인류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둘을 어떻게 연관 지을지, 이에 관한 모든 생각의 풍경을 바꾸어 놓는 사건입니다. 성탄절은 이 부활을 가능케 한, 하나님과 인류의 신비롭고도 유일무이한 결속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매년 돌아오는 이 두 절기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는다. “두 축일은 모든 설교자에게 커다란 도전입니다. 성육신 사건과 부활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과 교리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역사를 전환케 한 이 사건들을 과연 충분히 말할 수 있을까요?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지성과 상상력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선사한 이 사건들을 어떻게 생



삶을 선택하라 로완 윌리엄스 민경찬·손승우 역 | 비아 256쪽

동감 있게 전할 수 있을까요? 독실한 그리스도교인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청중에게 이를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같은 생각으로 책을 펴낸 이들에게, 저자는 다양한 본문을 통해 성탄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본서의 제목과 같은 설교 '삶을 선택하라(막 16:1-8, 벰전 2:4)'에서 “부활절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활동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감지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날”이라며 “교회의 모든 활동은 예수를 투명하게 드러내야 하고, 교회는 그분의 임재를 가로막거나 가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들이 믿어야 할 것을 독단적으로 규정해 역사의 흐름을 거치며 바뀌는 지배 계층에 둘러볼 수 세기에 걸쳐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회는 교회에 속한 이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나자렛 예수를 살아 있는 동시대 인물로 만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전한다.

저자는 “부활 사건에 담긴 메시지의 본질에 관한, 그리고 신약성서 시대를 살아가던 이들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속지 말라”며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들과 동일한 위험을 감내하고 그들이 마주했던 신비와 씨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저 약속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이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렇듯 저자는 부활과 성탄에 대해 너무 이상하기도, 너무 생뚱맞지도 않게 '오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대용 기자

실패의 미덕

샤를 페갱 | 허인 역 | 마리서사 | 240쪽

세네카, 키케로, 사르트르, 프로이트를 통해, 실패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이끌고, 우리 삶에서 실패가 갖는 긍정적 의미를 찾아낸다. 저자는 “실패는 우리가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 가능성에 도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단 한 번도 실패를 겪지 못한 삶이 진정한 실패”라고 말한다. 실패는 현실과 만나고 자신에게 정착해질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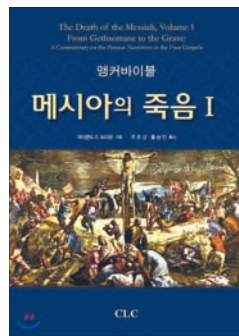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없었다? 허구가 사실보다 이상해”

레이몬드 E. 브라운의 <앵커바이블: 메시아의 죽음> 1·2권

“본서의 주요한 목적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복음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대한 내러티브를 통하여, 그들의 독자들에게 그들이 의도한 것과 전달하려고 했던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수난'을 주제로 최대한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가톨릭 신학자로서 역사비평 방법을 성경 연구에 처음 적용한 저자는 마가/마태, 누가, 요한에 의해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이, 어떻게 그들의 복음서 '수난 내러티브(the passion narrative, PN)'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과 부합하는지 설명하고 자 본서를 집필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 가면서 '수난 내러티브'를 상세히 묘사한다.

'내러티브'답게 마치 연극 대본처럼 막(Act)과 장(Scene)으로 나뉜다. '제1막: 기드론 시내 건너편 감람산 겻새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체포되다', '제2막: 유대 관리들 앞에서 신 예수님', '제3막: 로마 총독 빌라도 앞의 예수님', '제4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인접한 무덤에 안치되다' 등을 순서대로 두 권에 담았다. 그



앵커바이블: 메시아의 죽음 레이몬드 E. 브라운 류호성·홍승민 역 | CLC

시작은 마지막 만찬 이후, 감람산에서의 기도이다.

책의 저자는 수난 내러티브가 얼마나 '극적(dramatic)'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이런 구성을 택했다고 한다. '발단-전개-위기-절정'의 느낌으로, 3막 중반까지 1권, 나머지 2권이다. '해피엔딩'이자 '대단원의 막',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부활'은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본문 분석 외에도 부록에서 '십자가 처형의 시간적 기록(날짜, 월, 연도)', '해석하기 어려운 관련 구절들: 막 14:41, 히 5:7-8, 마 26:50, 요 10:13)', '가톨릭 유대어에 대한 개관', '수난 내러티브들에 기록된 여러 유대인 집단들과 권력자들', '수난 내러티브들의 구약 배경',

'자신의 수난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등 흥미로운 주제들을 꺼내고 있다.

책은 본격적인 본문 검토에 앞서 복음서 각 수난 내러티브들을 해석학적·역사적·신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복음서 수난 내러티브들의 범위와 맥락 △공공복음서 간의 상호의존 △복음서로서 마가복음과 마가 이전 수난 내러티브(pre-Markan PN) △마태·누가복음의 수난 내러티브와 자료 △요한복음 수난 내러티브의 기원 등을 살폈다.

자료 비평과 철저한 고증을 기초로 해 분량이 방대하기에, 찬찬히 읽어내려가야 한다. 목회자들의 사순절 설교 준비와 신학생들의 관련 연구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할 용도로 찬찬히 읽어내갈 수 있다.

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작성된 '시나리오들'에 대해 “그 시나리오가 터무니없이 불합리할수록 더 크고 선풍적인 인기를 보상으로 받을 뿐 아니라 이것이 끌어당기는 일시적 흥미도 그 강도가 더한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난처한 통찰”이라며 “이러한 이론들은 예수님의 수난과 관련해 '허구가 사실보다 더 이상하고, 금전상 이익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원제는 'The Death of the Messiah, From Gethsemane to the Grave: A Commentary on the Passion Narratives in the Four Gospels'. 이대용 기자

하나를 더하는 전인교육

조만제 | 예영 | 340쪽

물질만능과 이기주의의 팽배로 공동체의 생존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책은 이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다시 바로 세울 방법이 '전인교육'이라고 말한다. 신앙·독서 교육을 통한 지성·감성·덕성·영성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계발하여 전인교육을 이루는 것이다. 저자가 세운 한국기독교청년교육원은 1992년부터 전인교육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이 곳에서 모든 교육의 기초는 신앙교육, 모든 학습의 기초는 책 읽기다.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2018 부활절 특별할인 행사

EVENT 1 | 감사패(임직패)할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드와 크리스탈재질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드립니다

Wood \$49 / Crystal \$59 (고급 케이스 포함)

EVENT 2 | Back Drop

고퀄리티의 배경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새신자 환영 및 각종 행사용 120x96 스탠드포함 \$299

교회 행사 및 새가족 사진촬영 배경으로 강추!!

EVENT 3 | 부활절 배너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다양한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 배너 36x120 \$49

부활절 배너 X-banner \$49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사업체를 섬기는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5.0244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 환전 빠른
송금 송금. 환전 송금
\$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습니다.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미용인도 OK)
회비: 월 \$10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치소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치아 파우더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2018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솔로몬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다는 제6처



주님께서 두 번째 쓰러지신 곳에 세워진 교회 내부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67)

주님께서 가신 비아 돌로로사의 14처 (2)

제6처 사랑의 보답

십자가 행렬은 다시 서쪽 언덕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힘겨운 길을 오르며 오르게 된다. 제5처에서 약 100m 정도 오르면 왼쪽으로 기둥 하나를 볼 수 있다. 그곳에 제6처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곳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eronica wipes the face of Jesus'라는 이름의 자그만 예배당을 1882년 그리스정교회에서 세웠다. 이곳의 유래는 베로니카(성경에 나오는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라는 여인이 피와 땀으로 얼룩진 예수님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 드렸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의 손수건에는 예수님 얼굴 형상이 찍혔고 이 손수건은 로마의 성베드로 성당에 707년에서 1608년까지 보존되다가 교황 요한 5세가 그림으로 남긴 후 치우려 하여 그 뒤에 행방불명이 되었다 한다.

제7처 두 번째 쓰러지신 곳

언덕을 향하여 인간힘을 쏟아 올라가면 현재는 옛 성의 중앙시장과 만나게 된다. 지금도 이곳은 옛 성에서 가장 번잡한 곳이다. 그곳에 주님께서 두 번째 쓰러진 장소가 있다. 이곳에도 어김없이 1875년에 세운 프란체스카 로마 천주교회의 기도처가 있어 순례객들이 둘러 기도하고 지나간다. 이 교회 제단 위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쓰러지시는 모습이 있고, 제단 밑에는 무개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부조되어 있다.

나는 가끔 순례객들과 이곳에서 눈물의 기도를 할 때가 있다. 잠시라도 주님의 고난을 느낄 수 있는 자그마한 기도처이다.

제8처 울지 마라

제7처에서 계단을 타고 20m쯤 올라가면 이곳에 제8처라고 표시가 되어있는 십자가 구멍 벽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주님은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눅 23:27-28)

지금 이곳은 두꺼운 벽으로 막혀있다. 그리고 그 위 길은 크리스천 지구로 나가는 길이다. 애처롭게 우는 여인들과 오히려 종말에 대비하라고 마음 다짐을 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장소이다.

제9처 세 번째 쓰러지신

제8처에서 길을 돌려서 다시 혼잡한 중앙시장으로 내려와서 남쪽을 향하여 30m쯤 가다보면 위쪽에 계단이 나타나는데 이곳으로 올라가 보자. 갑자기 혼잡한 시장에서 한가로운 길로 접어든다. 이곳

에는 영문교회가 있다.(히13:12-13) 영문 밖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 가까이 골고다 언덕에 우뚝 솟아있는 예수님 무덤교회(Church of the Holy Sepulchre)의 탑을 볼 수 있다. 시리아 정교회 앞에 있는 문과 기둥에서 제9처의 표시를 본다. 이곳에서 주님은 마지막 세 번째 쓰러지셨다. 문 안부터 무덤교회 경내가 된다.

문으로 들어가면서 제1처에서 빌린 십자가를 내려놓는다. 이곳에는 헬레나 기념교회 탐과 에티오피아 정교회와 기념교회당들을 볼 수 있다. 자그만 에티오피아 교회당을 통과하면 무덤교회 정면이 나온다. 작은 교회당에는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벽화가 있다.(왕상10:1)

에티오피아 정교회 사람들은 이곳에서 동굴 같은 집을 지어놓고 평생 무덤을 지키면서 산다고 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빈 무덤을 평생 지키느라 애쓰는 생각을 종종해본다. 무덤교회 앞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웅장한 모습보다는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슬픔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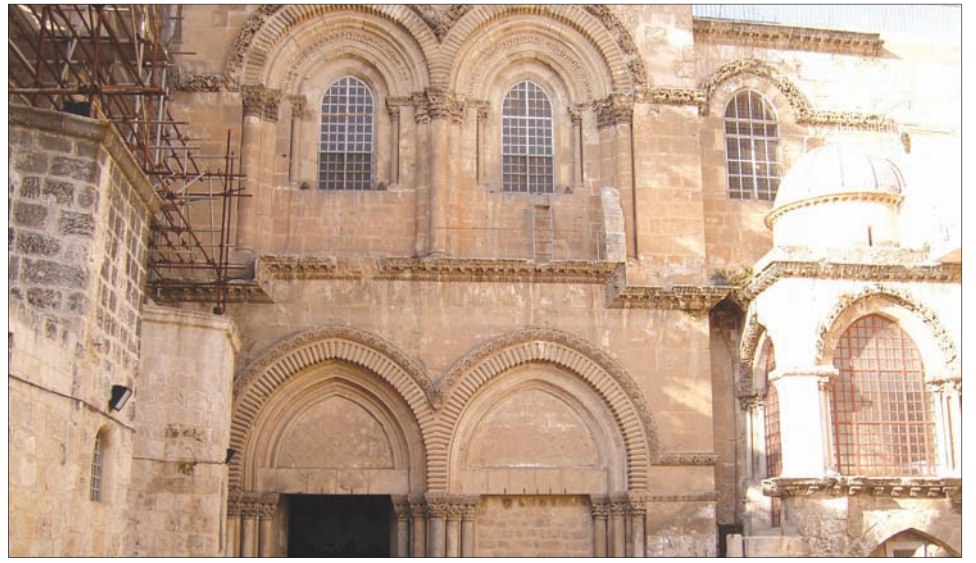
다. AD 326년경 콘스탄틴 황제의 모친 헬레나 황후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골고다 언덕을 찾아가고 싶었다. 헬레나의 방문 요청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Mecarius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십자가 형틀의 황대를 발견하였다. 이렇게 골고다 언덕은 확증되었고 헬레나에 의하여 336년경 이곳에 무덤교회가 건립되었다.

370년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되므로 비잔틴 시대라는 기독교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고 무덤교회는 각광을 받는 성소가 됐다. 그러나 이 교회는 614년 페르시아에 의하여 방화로 파괴된 후 모데스토스(Modestos)라는 사제에 의하여 재건된다. 1009년 회교 칼리프 하킴에 의해 재차 파괴된 교회는 기둥만 남게 되고 이에 격분한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군을 조직하여 1096년 성지 탈환을 이룬다. 그리고 1149년 오늘날의 교회 모습으로 무덤교회는 다시 세워졌다.

(계속)



제8처의 십자가 구멍 벽



제9처 무덤교회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신입생, 편입생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Los Angeles 목회자영성집회 및 성령컨퍼런스**

**성령과 기록**  
Holiness and the Spirit

**2018년 4월 3-4일 (화,수)**

화 | 4:00pm-10pm  
수 | 9:30am-12:00pm  
(무료등록, 저녁, 점심제공)

**장소: 오직예수선교교회** (생신목사사무,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3407 W. 6th st. #103. Los Angeles, CA

**평신도를 위한성회**  
**2018년 4월 4일 수요일 오후 7시**  
**장소: 나눔과 섬김의 교회** (담임목사: 엘리야 김 목사)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강사: 이상목 목사**  
목회자성령컨퍼런스 주강사 (한국, 미국, 캐나다, 남미, 동남아 등)  
목회자영성회복 주강사  
팬실베니아 Erin 한인 장로교회 담임  
KAPC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남부노회

**합류부대:**  
거룩함이 있어야 가는 길은 이 시대엔 거룩과 영성을 회복하며 능력있는 목회자로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상목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강력한 주님의 능력과 임재의 자리에 모든 목회자, 사모, 전도사, 선교사님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주재담 목사(Dee Jim Kim, Ph.D, RPCA 총회장)

**집회문의:**  
213)272-6031  
213)219-1187  
201)944-9777  
에스더유 전도사  
562)896-3212

**개혁장로회한미연합총회**  
후원: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여성목사회

# 해방 후 미군정기 '교회' 공간의 3대 역할

##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제22회 영익기념강좌 열려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소장 박명수 교수) 제22회 영익기념강좌가 '해방공간 한국인들의 정치 및 종교 동향'이라는 주제로 28일 오전 부천 서울신대 유석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좌에서는 박명수 교수와 허선혜 선생(고려대 박사)이 발표하고 김성건 교수(장신대)와 최현종 교수(서울신대)가 논찬했다.

### ◆미군정 여론조사, 우편향 아니었다

'1946년 미군정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한국인의 정치성향'에 대해 발표한 박명수 교수는 "많은 학자들은 해방 후 한국사회가 좌파 내지 중도 세력이 우세했고, 미군이 아니었다면 한국이 공산주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해방 후 누구보다 이승만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신탁통치 반대자들이 지지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만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교수는 "해방 공간에서 한국민의 정치동향을 아는 방법에는 미군정 당시 여론조사가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미군정이 우익에 편향된 조사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당시 미군정은 좌우합작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승만에게 호의적이지도 않았으므로 이런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1946년 3-7월 진행된 미군정의 여론조사들을 분석했다. 당시 미군정 여론조사사과에서는 농지처분과 산업, 자산 국유화(3월 12일), 서울의 정치동향(3월 31일), 서울에서의 일본과 소련의 선전 효용성(4월 12일), 미소공위 제5호 성명에 대한 반응(4월 20일), 사회민주당 창당(5월 17일), 서울과 지방에서의 일본과 소련의 선전 효용성(5월 20일),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9월 10일) 등을 조사했다.

박명수 교수는 "미군정이 공산주의에 대해 반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서 이승만과 같은 소위 '극우세력'을 지지하지도 않았다. 미 국무성은 이미 미군정에 이승만이나 김구 외에 다른 대안을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미군정 내에서도 이승만이나 김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했던 로빈슨이 그 대표

적인 예로, 미군정이 우익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진행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해방정국에서 한국인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은 그들이 지지하는 인물과 지도자 선출방법, 정당·단체, 정부 형태, 미소 관계, 단독 정부, 서울의 동향 등을 살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해방정국의 정치성향은 분명히 우익"이라며 "3월 말 조사에 의하면 우익 인사에 대한 지지가 70%(좌익 30%)였고, 그중에 이승만에 대한 지지가 30%로 가장 많았다. 당시 지지 인물에 대한 조사는 우익 인사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설명했다.

또 "5월 20일 조사에 의하면 정부 형태에 대해서도 소련식이 11%, 미국식이 37%, 혼합이 34%로 나타난다. 7월 전국 조사에서는 개인이나 특정 계급에 의한 지배보다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의 제도를 85%가 지지하고 있다"며 "4월 12일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북한식 토지개혁을 반대했고, 신탁통치 세력을 소련으로 봤으며, 소련이 미소공위에 이승만·김구 등을 배제하려는 것에 반대했고, 북한에서 사는 것이 싫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는 상당수 한국인들로 하여금 남한에 단독정부를 세우는 것을 찬성하도록 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서울에서 우익 성향이 강했다는 점"이라며 "흥미로운 점은 북한식 토지개혁에 대해 도시보다 시골에서 더욱 반대가 많았는데, 이는 아마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얻기보다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풀이했다.

경제 개혁에 대해서도 "당시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농지 국유화를 반대했고, 지나친 노조 운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분배 방식도 한국 대지주들의 땅은 유상으로, 일본인 땅은 유상과 무상이 비슷했다"며 "당시 한국인들은 자본주의적 체제를 선호하지만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미하고 있는 것으로, 당시 미군정 보고서는 사회주의 성향을 정당화하지도, 무효화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박명수 교수는 "해방 후 대다수 한국인들은 정치적으로 우파 지도자와 우파 정당 및 단체, 서구식 대의민주주의를 지지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통제나 국유



기념강좌를 마친 후 기념 촬영

화 정책, 자본주의 시장경제나 사적 소유권 절대 보장 등을 모두 반대하고 양자의 결합을 원했다"며 "이승만도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반대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산주의를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성향을 종합할 때, 해방정국에서 한국인들의 정치성향은 우익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배타적 자본주의 체제보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일정 타협된 사회민주주의 경향을 포함했다"며 "일부 학자들은 해방정국 여론조사의 좌익적 성향은 수용하고 우익적 성향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는데, 미군정 여론조사 담당자들은 우익편향이 아니었으므로 해당 여론 조사를 다시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미군정기 교회 공간의 3가지 기능

이후 허선혜 선생은 '미군정기 신문의 교회공간에 대한 인식: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분석'을 바탕으로 '미군정기 3년이라는 특수하고 제한된 시간적 범위 내에서 형성된 교회 공간에 대한 언론의 인식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허 선생은 "일제 치하 한국교회는 경계와 감시, 핍박의 대상이었지만, 해방 후에는 정부 당국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됐다. 즉 해방 후 기독교에 우호적인 미군정이 남한에 실시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위상과 임지를 갖게 된 것"이라며 "교회는 미군정 시기 그 공간의 개념 자체가 통상적 종교

시절 이상의 사회적·정치적 산물이자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분석'에 따라 내용과 주제, 관계와 언어의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교회는 본연의 목적 외에 구호의 사회사업이 펼쳐지는 공간, 국가재건과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우파 정치세력의 활동 공간, 국민계몽과 사회적 약자의 정착이나 친목 모임이 이뤄지는 문화 공간 등 3가지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허선혜 선생은 "미군정기 신문에서 교회 관련 기사 중 전재민, 빈민, 하층민을 위한 구제사업을 시행하거나 물품을 지원해 왔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며 "미군정기 언론은 교회의 공적 기능과 포용성을 강조하고, 교회를 순수한 박애 활동을 펼치는 사회사업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부 기사에서는 목사가 전재민의 터전을 빼앗고 빈민의 구호물자를 빼돌렸다는 내용도 발견된다"고 밝혔다.

허 선생은 "미군정기 신문들에서 교회는 신도들 간의 교제가 이뤄지는 공동체나 신앙적 성숙을 위한 예배 등의 활동이 이뤄지는 종교 공간으로서의 근본 기능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며 "기독교의 정치 활동과 관련한 기사에서 교회는 집회, 모임의 장소적 배경으로 등장하고, 기독교인들이 민족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장소로 등장하며, 기독교 단체가 애국의 염원을 담아 적극 민족적 행위를 펼치는 장으로 인식됐고, 교회의 친미적·우익적 성향도 강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적 교양, 계몽,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보도된 기사들도 발견된다"며 "교회는 당시 계층을 망라해 열악한 사회적 여건에 놓인 국민들에게 문화교양 부문의 필요를 채워주는 장소, 월남인들의 모임공간 등 이방인들이 남한 정착을 위해 결집하는 공간 등 포용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허선혜 선생은 "교회공간에 대한 인식을 형성시킨 이러한 담론은 미군정이 가졌던 이데올로기와 당시 기독교가 추구했던 이념적 가치관, 문화적 코드가 부합했던 당시 사회구조적 요건으로 인해 교회가 정치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된 사회구조적 요건이 배경이 됐다"고 정리했다.

허 선생은 "미군정이 구호물자를 주로 교회를 통해 나눠줬던 점, 구호단체 임원들이 주로 기독교인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구호사업이 시행된 점은 해방 후 좌파가 사회경제적 토대를 갖고 토지혁명을 통해 득세하려 했을 때, 우파는 구려사업을 위해 구제구휼사업을 앞서 실천했던 선교의 특성을 갖는 기독교를 통해 이에 대처하려 했다는 이데올로기적 흐름도 읽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익기념강좌는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설립기금을 기증한 김영익 집사를 기념하여 지난 1997년부터 매년 봄 열리는 학술강좌로, 저명 학자들을 초빙해 주로 한국교회와 복음주의 운동의 최근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대웅 기자

### "예수 부 알 아셨네"

## 벤츄라 카운티 교역자협의회

회장 : 이정구 목사  
총무 : 남재현 목사

### 회원교회

- 벤츄라 감리교회(김민영목사)
- 벤츄라 열린문장로교회(김경욱 목사)
- 벤츄라카운티 장로교회(이정구 목사)
- 새생명 교회(승광철, 정용제 목사)
- 씨미밸리 한인교회(반채근 목사)
- 옥스나드 한인교회(김진구 목사)
- 옥스나드 연합감리교회(남재현 목사)
- 주님의 교회(오정택 목사)
- 카마리오 열방교회(권혁래 목사)
-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조인 목사)
- 카마리오 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목사)

##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담임목사

### 교회모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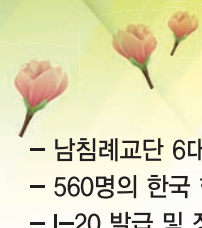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 EM예배 오전 11:00
- 주일학교 오전 11:0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 금요성령대명회 금 오후 7:20

### 주소 및 전화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학장 박성진

- 남침례교단 6대 신학교
- 560명의 한국 학생 재학중
- 1-20 발급 및 장학혜택
- 인턴십 및 온라인으로 진행
-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Ph.D.)
- 목회상담학박사 (D.Min. in counseling)
- 선교목회학박사 (D.Min. in Missions)
- 설교목회학박사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 가족상담학 석사 (MACO)
- 신학연구석사 (MTS)

###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 414-3754

Email: ks@mbts.edu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BETHEL CHURCH  
남가주벤틀교회



담임목사 오 병익

### 예배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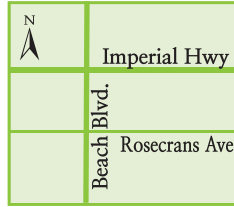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 오전 6:00(토)
-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 셀가족 예배 : 매월 2째주 주일 오후 5:30분

562-524-2037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info@bethelchurchsoca.org



# 예수 부활하셨네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45
-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 아름다운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810-3455 / F. (626) 964-5559

## “축부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 사/명/선/언

복음을 신실하게 믿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불신자를 불러 양육하는 예배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

### “예수를 본받는 교회, 믿는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이 소문난 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교육부 오전 11:30
-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30
- 수요 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choonghyun.org

## 충현선교교회

### 주소 및 전화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오픈뱅크와 라디오코리아가 함께하는



# 사랑의 크루즈

“은 가족이 ‘꿈’이란 것을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나누는 좋은 힐링시간이 됐습니다”  
-에밀리 1기 참가 가족-

“I can confidently say that this trip was not only a vacation opportunity, but a time of growth and healing that could never have happened back home.”  
-황지혜 1기 참가 가족-

“받은 사랑 만큼 그보다 더 크게 돌려서 나누며 살도록 할게요”  
-제임스 강 1기 참가 가족-

“인생은 아름다워!  
사랑의 크루즈를 다녀오며 제가 붙인 부제입니다.  
무한한 인생의 가능성과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슈아 엄마 1기 참가 가족-



한인사회 최초로 선보이는 대규모 나눔 프로젝트 2탄!  
가족과 함께 떠나는 무료 3박 4일

## 울림과 힐링이 있는 여행!

반복되는 일상에 벗어나 삶의 행복과 여유를 누리는 가족 힐링여행!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선상 위 아름다운 추억! 오픈뱅크와 라디오코리아가 소통과 재충전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아 준비 했습니다. 매년 수익의 10% 사회 환원 약속을 지켜온 오픈뱅크의 나눔에 사랑과 감사가 보태져 감동을 더합니다!

### 신청 대상

고단한 이민생활에서 벗어나 따뜻한 삶을 나누고자 하는 가족 모두에게 무료로 사랑의 크루즈를 함께 떠날 기회를 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평소 대화나 관계가 소원했거나 휴식시간을 함께 갖지 못했던 부부, 부모나 자녀 등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 신청방법

'우리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한 애뜻하고 가슴 뭉클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1차 사연 선별 후 개별 방문을 거쳐 선정된 최종 30여 가정은 사랑의 크루즈에 함께 오르게 됩니다.

우편참여 : Radiokorea (아침마당 담당자 앞)  
3700 Wilshire Blvd. # 600, Los Angeles, CA 90010

카카오톡 : radiokorea1540  
홈페이지 : radiokorea.com/radio (아침마당 청취자 게시판)

### 신청날짜

2018년 4월 13일 : 사연 신청 마감  
2018년 4월 16일~30일: 1차 선별 가정 방문 인터뷰  
2018년 5월 1일 : 최종 선정후 개별통보

### 다양한 프로그램

라디오코리아 최고 인기 프로그램 '아침마당' 진행자 우정아, 김형준씨와 사회 저명 초청 강연자들이 함께 배에 올라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한 유익하고 알찬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 푸짐한 경품

3박 4일 여행기간 내내 펼쳐질 다양한 이벤트들을 위해 푸짐한 경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 이번 나눔 이벤트에 흔쾌히 동참해주신 우정아, 김형준 진행자와 엘리트 투어 빌리 장 사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공지사항]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선정기준과 판단은 주관처 재량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213) 487-130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주세요.